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



KC코트렐 임창호 상무님

이번 호에는 KC코트렐 CC20 TFT에 계셨던 제철사업부 임창호 상무님이 글을 게재하여 주셨습니다. 4개월간 추진하였던 TF업무가 종료되면서 상무님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

유난히 변덕스러운 날씨!! 아마 기상관측상 4월 기온으로는 최저의 기온을 기록하여 몸이 움추러들고, 거센 바람에 힘겨운 날들이 유난히 많았으며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저온현상과 일조량 부족으로 과수농가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귀한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애통하는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날씨는 따뜻해질 것이고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던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방어태세와 전력을 보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추진하였던 CC20(Cost Cut 20/Culture Change)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선뜻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코트렐의 최고 경험자들이 술선 수범하여 TFT조직이 구성되고 업무를 시작하였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우리가 목표하였던 Hurdle을 달성하고 실행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난 일들이 그리 넉넉하고 쉽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 안건을 토론 하면서 언성을 높이기까지 하였고

감정이 대립되기도 하였지만 저녁에 소주한잔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고자 하였던 정량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그 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정리하고 후배들에게 향후 코트렐을 이끌어 갈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고자 하였던 노력,

고정관념과 자기중심적 사고의 변화,

다양한 생각과 유연한 사고를 갖고 다방면에서 넓은 시야로 되돌아보는 여유와 자신이 변해야 고객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원천이 된다는 것,

전사적 활동을 통한 공유 및 조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전사적인 프로젝트의 참여와 더불어 회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문화의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며 서로 협력하여 활동하는 또 다른 조화의 문화를 경험,

자아에 대한 성찰과 미래계획,

항상 뇌리에만 맴돌던 나의 Goals를 가시화시켜 미래의 나의 모습을 좀 더 현실화 시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작성되어진 아이디어에 국한하지 않고 또 다른 신기술의 접목에 게을리하지 말며 혜택과 이익에 먼저 나서지 않는 화합과, 향후 KC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여야만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KC코트렐 제철사업부상무/CC20 TFT 임창호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KC코트렐]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대상기업 선정

지난 5월 12일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대상기업 인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이란, 독일식 "히든챔피언" 개념을 활용, 우리 실정에 맞게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만들어 수출1억불 이상이고 지속적인 세계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으로 정의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 11월부터 육성사업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최우대조건의 금융/비금융 서비스 수혜,지경부, KOTRA 등 타 유관기관 프로그램과 연계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등 여러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참고 : "히든챔피언"이란 독일의 헤르만 지몬 이라는 교수에 의해 "세계시장 1~3위이고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매출액 40억불 이하 기업"으로 정의된 용어이며 한국에도 25개 가량의 히든 챔피언 기업이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철삭공구를 생산하는 YG1(세계시장 1위, 점유율 60%), 모토사이클 헬멧을 생산하는 HJC(세계시장 1위, 점유율 20%), 완구를 생산하는 오로라월드(세계시장 3위, 점유율 5%), 그리고 헤어드라이어를 생산하는 유닉스전자(세계시장 2~3위, 점유율 25%) 그리고 전기집진기 등 환경설비를 제작하는 KC코트렐이 곧 되겠지요? ^^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hyunjoo@kcgreenholdings.com)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인증서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KC코트렐] 대한상의, 한중녹색경제협력포럼 최영희 전무 참석 및 발표

지난 5월2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중국 국제 무역촉진 위원회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회 한중녹색경제협력포럼'을 개최, KC코트렐 발전민수 사업부장 최영희 전무님이 참석하여 발표하셨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장선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의원,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등 한국측 인사 200명이 참석했으며, 완지페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자오버야(赵博雅) 중국 중방집단 총재, 쉬스웨이(徐思伟) 중국 오광집단 부총재 등 중국 기업인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영희 전무님은 CO2 저감기술체계 및 건식 CO2포집공정을 소개하였으며 한-중간 녹색산업(CCS)협력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중간 Synergy를 살릴 수 있는 사업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한중녹색경제협력포럼'에는 이태영 사장님이 참석하여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hyunjoo@kcgreenholdings.com)



▶ KC코트렐 최영희 전무



▶ 대한상의 손경식회장 개회사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KC코트렐] 녹색성장, 기후변화, 지속가능경영 2010년 논문공모 후원

KC코트렐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주최, 홈플러스, (주)포스코,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삼성지구환경연구소가 후원하는 녹색성장, 기후변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논문공모를 공동 후원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010년 5월3일(월)~2010년 8월31(화)까지이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녹색성장, 기후변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참신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여 관련 신기술, 신시장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속가능경영원” 홈페이지에서 행사안내를 참고하시고, 아래 사진은 관련 포스터입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hyunjoo@kcgreenholdings.com)

녹색성장 · 기후변화 · 지속가능경영

## 2010년 논문 공모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주최, 홈플러스, (주)포스코,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삼성지구환경연구소, KC코트렐 후원으로 아래와 같이 논문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녹색성장 · 기후변화 ·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내 대학(원)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참신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여 관련 신기술 · 신시장 창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논문 주제

- 기후변화 · 에너지 관련 분야
- 환경산업 · 기술 · 에코디자인 · 정책 관련 분야
- 지속가능경영 관련 분야

○ 공모 개요

- 접수기간 : 2010. 5. 3(월) ~ 2010. 8. 31(화)
- 응모자격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재학증명서, 논문(요약서 포함) 각 1부 [공모전\(양식\) 다운로드](#)
- 작성분량 : A4 20매 내외
- 작성방법 : 「논문작성 요령」 참조
- 접수방법 : 우편접수(응모신청서, 재학증명서) 및 온라인 접수(논문파일)
  - 온라인(E-mail) : isutar1007@korcham.net
  - 우편 : (우: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회관 17층 (사)지속가능경영원 논문공모 담당자함
- 심사방법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 심사기준 : 주제의 적절성, 내용전개의 논리성 및 일관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수상장 발표 : 2010년 10월초(예정)

## ▶ 논문공모 포스터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시상식 예정  
· 시상내역

구분	시상종목	시상내역	수상자수
최우수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상장 및 장학금 300만원	1명
우수상	홈플러스 e파란재단 이사장상	상장 및 장학금 200만원	6명
	(주)포스코 기술총괄부문장상		
	한국서부발전 사장상(주)		
	한국중부발전 사장상(주)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상		
장려상	KC코트렐 사장상	상장 및 장학금 100만원	2명
	지속가능경영원장상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상		

※ 특기사항 ① 수상자 후원기업 입사지원시 인센티브 부여  
※ KC코트렐 입사지원시 서류전형 면제  
※ 지속가능경영원 입사지원시 가산점 부여  
② 채택된 논문은 논문집으로 발간

※ 우수 논문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 수상자가 축소되거나 없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부담

## ○ 기타사항

-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된 논문의 저작권은 (사)지속가능경영원에 귀속되어 공적인 용도로 활용 가능함
- 타 공모전 수상작품 및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수상 이후에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조치함

## ○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사)지속가능경영원 ☎ 02-6050-3804, E-mail: isutar1007@korcham.net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후원 : Home plus POSCO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KC Cottrell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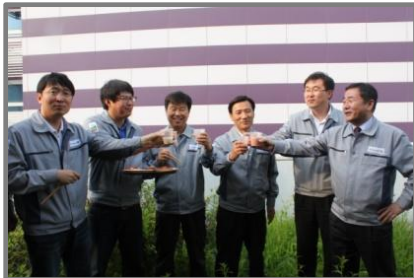
경제 동향

기획특집

## [KC코트렐] 고재영사장님 취임 기념행사

지난 5월28일 KC코트렐 본사 SKY PARK(옥상), 코트렐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재영 사장님 취임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와인을 주제로 간단한 파티를 하였으며 올해는 요즘 트렌드로 부상하는 막걸리를 주제로 파티를 가졌습니다. 본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 막걸리파티  
행사사진

## [Lodge Cottrell Ltd.] 김성진 상무 해외법인장 발령

KCMS 공장장으로 계셨던 김성진 상무님께서 영국 버밍엄에 소재한 Lodge Cottrell에 해외법인장으로 5월 1일자 부임하시고, 7월 1일부터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임지에서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축하드리며 건강하고 번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 김성진 상무님 취임사



▶ 서동영 전무님 말씀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종합환경기획(주)] 축! 개소식(開所式)

지난 5월27일 서울시 사당동에 위치한 종합환경기획 주식회사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고재영 사장님이 대표이사로 계신 종합환경기획은 정부와 민간 기업의 개발,보전,경제,사회,환경 활동을 통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의 업무 조율을 통해 기업의 사회비용 (시행착오를 통한 비용과 시간의 최소화)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KC네트워크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 드리며, 종합환경기업의 주요업무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 ◎주요업무

- 정부 환경정책 자문,진단을 통한 최적의 대안 도출
- 기업 환경경영 관련 각종 컨설팅 및 인허가 절차 대행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영향성 검토 대행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각종 정책자문 기술 지원,진단
- 기업 간 분쟁조정 중재 및 인수합병 자문
- 각종 환경관련 정보인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가공
- 기업 녹색경영보고서 및 CDM사업 대행 자문
- 기업 해외 진출 자문, 현지 타당성 조사 및 개도국 지원 컨설팅

종합환경기획 정세진(sejin@totalenv.co.kr)



▶개소식 모습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KC한미산업] “무재해 운동” 목표달성

KC한미산업(주)가 KC가족이 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경영 목표 중 무재해 운동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당사도 2008년 8월 20일부터 무재해 운동에 동참하여 지난해 2009년 7월 5일 무재해 1배수 목표를 달성했고 금년 2010년 5월 21일 무재해 2배수(640일)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휴로 미루어 왔던 2배수 달성에 기여한 모범 사원에 대한 표창 및 간단한 기념 행사로 지난 5월 25일 특식의 점심으로 자축하고 이강욱 대표이사님과 직원 일동은 무재해 3배수 달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파이팅 입니다 ^^

KC한미산업(주) 안종길 부장(jkahan@kc-enviro.com)



▶ 무재해 운동 목표달성  
기념행사 및 표창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안성유리] 'High-5 프로젝트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쾌속 순항 중'



## “생각하라! 뒤집어라! High-5”

안성유리는 2010년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생각하라! 뒤집어라! High-5”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문컨설팅회사인 McQs와 함께 전사적인 수익성향상 Program인 TOP(Total Operational Performance)Project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칭찬과 긍정의 안성유리

‘High 5’ 혁신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앞서 Academy 를 걸쳐 당사 2층 교육장에 마련된 TFT 사무실에 프로젝트멤버들이 처음 모였을때만 해도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낼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거운 분위기였으나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과 창조와 혁신의 아이디어개발 워크샵 및 야간 산행 등을 통한 팀워크 형성으로 칭찬과 긍정의 말이 오가는 안성유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숫자에 연연한 결과보다는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핵심!

전사가 한 마음이 되어 매출이익률 5% 향상 달성하고, 새로운 혁신 문화를 구축하자는 목적으로 출범된 ‘High 5’ 혁신 프로젝트는 15억이라는 원가절감 목표금액 달성도 중요하지만, 시장 및 기술, 고객의 변화 등으로 인한 외부조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내부 역량의 강화 및 긍정적 마인드 조성과 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숨겨진 에너지가 이번 프로젝트로 인하여 KC그룹 내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지금도 안성유리는 변화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안성유리공업(주) 경영기획팀 홍세라주임  
(srhong@asglass.co.kr)



\*기획특집에서 “High-5 프로젝트”편이 계속됩니다.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안성유리] 제조 박건수차장,  
중소기업 모범근로자수상

지난 5월 17일 제 22 회 중소기업 주간(2010.5.10~5.15)을 맞이하여 중소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중소기업인 및 근로자에 포상 수여식에 안성유리공업(주) 제조 박건수 차장이 중소기업모범근로자로 수상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안성유리공업(주) 운영지원팀 홍정미  
(jmhong@asglass.co.kr)



▶ 수상 사진



## [KC네트워크] 친선 풋살게임

지난 5월19일 늦은 6시 상암동 풋살 경기장에서 KC코트렐 발전민수사업부 대 신재생에너지 네트워크사의 숨막히는 풋살 게임 전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지친 몸을 이끌고 양팀 모두 열심히 뛰었으나, 아슬아슬하게 2:1로 발전민수팀이 승리의 잔을 거머쥐었습니다. 게임의 승패를 떠나 한마음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대항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 참석자 기념사진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시대를 앞서는 한국의 CEO’ 미국 포워드 매거진, 정준양 회장 호평 < Forward Magazine >

#### 열린 경영·창조경영·환경경영 등 조명

정준양 회장이 미국의 철강 관련 전문지로부터 ‘시대를 앞서는 최고경영자’로 호평 받았다. 미국의 비철금속 리서치 전문기관인 MSCI(Metals Service Center Institute)가 격월로 발간하는 <포워드 매거진(Forward Magazine)>은 3~4월 호에서 정준양 회장을 소개하며 ‘시대를 앞서는 한국의 CEO(Ahead of the Curve, The CEO of South Korea's POSCO)’라고 높이 평가했다.

기사는 포스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을 인용하며 세계 곳곳에서 근무하는 포스코 직원들의 회사·일에 대한 자부심과 가족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이 같은 직원들의 자부심은 정준양 회장 취임 이래 새롭게 변화된 열린 가치 시스템의 일부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러 정준양 회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열린·창조·환경경영에 대해 설명하고 △금연정책 △포레카 운영 △CEO와의 조찬간담회 등 정 회장이 지난 1여 년간 추진해 온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포스코의 근무환경이 정 회장 취임 이래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이 CEO블로그를 통해 직원들에게 직접 책을 추천하고 있으며 구글과 같은 회사의 패러다임을 모델로 삼아 직원들이 보다 창의력·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포워드 매거진>은 포스코가 지난해 글로벌 경제침체 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속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정 회장이 단지 부드러운 경영스타일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포스코가 터키·베트남·멕시코 등 12개국에 36개의 가공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워런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포스코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10대 철강회사 가운데 지난해 분기 적자를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않은 유일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포워드 매거진>은 이어 ‘포스코3.0’을 기치로 정준양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 △혁신적 사업장 △그린 테크놀로지 등 도전적인 경영전략을 소개하는 것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정준양 회장은 앞서 <한경비즈니스>가 선정하는 ‘2009 올해의 CEO’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2009 대한민국 정도경영대상’에서 각각 1위와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로부터 탁월한 리더십과 윤리경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포스코 신문(5/6, 제817호)

### 상하이엑스포 ‘포스코주간’ 개막 5월 26일~6월 5일 ... ‘환경·인간·철, 함께 꿈꾸는 미래’



▶ 포스코는 5월 26일 상하이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에서 ‘포스코주간’ 오픈 행사를 갖고 신뢰의 포스코 브랜드와 녹색성장의 비전을 알리기에 들어갔다. 이날 내외빈들이 포스코주간 시작을 알리는 희망트리 점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 한국관광공사 사장, 조환익 코트라 사장, 정준양 회장, 왕위춘 FAW-CAR 부총경리,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포스코가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상하이엑스포에서 포스코주간을 열고 ‘환경·인간·철, 함께 꿈꾸는 미래’를 주제로 포스코 알리기에 나선다. 포스코는 5월 26일 상하이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 1층에서 오픈 행사를 갖고 포스코주간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고객사 대표, 정준양 회장과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포스코 주간 행사 기간에 상하이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 1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행사를 통해 관람객에게 ‘신뢰’의 포스코 브랜드와 녹색성장 비전을 알린다. 행사장 내에 포스코 스토리텔·이미지월을 설치하고 캐릭터 퍼포먼스 등을 통해 포스코의 역사와 친환경 이미지를 알리는 한편, 포스코 미션 투어 및 희망 메시지 트리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예코백 등 푸짐한 기념품을 준비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을 계획이다.

포스코는 행사 기간 동안 중국 오지 어린이 초청행사와 식수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5월 30일과 6월 5일 2차례에 걸쳐 지린성(吉林省)과 베이징 지역 어린이 250여 명을 초청, 상하이엑스포 투어를 실시하고 희망나눔 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5일 이미 1000여 그루의 나무심기 활동을 마친 포스코차이나와 포스코건설·포스코ICT 등 베이징 지역과 중국 내 전 출자사와 법인들이 6월까지 총 7500그루의 나무를 심는 녹색 릴레이 운동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는 같은 날 오픈 행사에 이어 웨스턴호텔에서 중국 내 주요 고객사를 초청해 고객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고객사 임직원과 한국·중국 정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준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코는 현재 중국 전역에 20개가 넘는 생산·판매·투자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사업적 필요에 한발 앞선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포스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준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포스코, 태양광사업 진출 타진  
RIST, 노르웨이 엘켄사와 기술교류 추진

포스코가 최근 세계적인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와 만남을 갖고 태양광 사업 진출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산하의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원장 권오준)은 지난 5일 관리동 간부회의실에서 세계적인 태양광 실리콘 회사인 노르웨이 엘켄(Elkem)사와 상호협력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RIST 권오준 원장을 비롯 엘켄사 CEO인 헬게 오센(Helge Aasen)과 CTO인 라그나 트론스타드(Ragnar Tronstad), 포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관심분야인 실리콘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협업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어 이튿날인 6일에도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차 회의를 이어 갔다.

이에 따라 양사의 협력이 성사될 경우, RIST는 노르웨이 엘켄사의 독자적인 폴리실리콘 생산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포스코그룹 차원의 신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포스코는 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박막 태양전지용 철강 소재인 솔라스틸(Solar Steel)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폴리실리콘 제조기술과 박막 기판소재의 개발을 한데로 묶어 태양전지 모듈 제조사업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강신문 (5/12, 제1540호)  
KC그린홀딩스 지원팀 이보람

제주화력, 질소산화물 걱정 '뚝'  
중부발전, 저감설비 준공 ... SCR 채택

한국 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은 3일 제주화력발전소에서 이재구 기술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KC코트렐 최영희 전무, 우주중합건설 김영태 사장 등 내·외빈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내 강당에서 제주화력 2,3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제주화력 질소산화물 저감설비는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높은 선택적 촉매 환원방식(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을 채택해 중부발전 자체 설계로 건설했다. 환원제로는 암모니아수 25%를 사용하며 NOx 배출농도 저감 효율은 67%로 212ppm에서 최대 70ppm까지 낮출 수 있다. 선택적 촉매 환원방식(SCR)은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암모니아를 주입 후 매반응기(촉매층)를 통과시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설치 촉매와 암모니아 주입량 조절을 통해 제거 효율을 70~90%로 조절이 가능하고 기술신뢰성이 우수하다. 촉매의 재질은 티타늄, 바나듐 등의 산화물로 구성돼 있으나 제작사의 자체 기술 노하우다.

중사업비 74억원을 투입, 제주지역 안정적 전력수급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공기를 단축, 8개월만에 성공적인 준공하게 됐다. 올해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은 약 150ppm으로 친환경기업일 경우 135ppm을 준수해야 한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대기법 배출기준을 준수, 청정지역인 제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부발전에서는 친환경 발전설비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전력신문 2010.6.3 박기진 기사  
KC그린홀딩스 지원팀 배수정 대리



▶ 준공식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삼척그린파워 대비공사 현장설명회  
남부발전, 국내 12개 건설사 참여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은 27일,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원덕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PQ)를 통과한 건설사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대비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세계 최대의 저열량탄 발전소이자 글로벌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로 건설 추진중인 삼척그린파워발전소(설비용량 1000MW×2)의 부지정지, 호안 축조 등을 포함한 대비공사의 상업 및 기술사항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입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현장 설명회에 앞서 PQ 신청업체를 지난 20일까지 접수했으며, 두산중공업·대림 컨소시엄,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1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남부발전은 이날 현장설명회를 거쳐 오는 6월 17일 입찰을 진행한다.

삼척그린파워발전소 대비공사는 3개 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 해당 건설업체가 지분 5%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으며, 공사비 지급액의 0.5%를 공사시행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의무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 선정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지역업체 우선 선정하도록 권장하고, 기자재 주변지역 우선구입, 지역민 우선고용 등도 권장할 예정이다.

출처 : 전력신문 2010.5.27 박기진 기자  
KC그린홀딩스 지원팀 배수정 대리



▲ 남부발전은 27일,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원덕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대비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환율시장

## 6월 원달러 환율 1,150~1,250 원 전망



2009.11~2010.05 환율차트

6월 미달러는 기술적 과매수, G20 정상회의 등에서 남유럽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유로존 우려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와 유로존이나 일본 대비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미국경제가 미달러에 지지력을 제공하면서 미 달러의 상승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유로/달러는 과매도와 국제적 공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6월과 3분기까지도 남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국제만기가 예정되어 있고, 유로존 전체의 재정적자 부담 및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20개월 이평선인 1.2060 달러와 1.2650 달러 사이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달러/엔은 기술적 부담 속에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약화와 글로벌 증시 반등으로 하락 제한되며 89~93 엔 사이의 등락이 예상된다. 6월 환율은 조정양상이 예상되나 5월 환율 급등 과정에서 달러/원 환율은 2009년 3월부터 형성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였다. 또한 유로존 우려가 글로벌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있어 2009년 3월 이후 글로벌 위험자산 비중 확대 추세는 일단락되었다고 판단된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지표는 여전히 개선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5월 금융시장 불안의 기저에는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로존 위기는 유로존 경기 둔화를 통해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통해서도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달러/원 환율은 5월에 상향 돌파된 하락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된 가운데 1150~1250원 사이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에 따라 변동성이 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으로 달러/원은 주간으로 일목균형표상 기준선과 지지선이 만나는 1150원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5월 중 일시로 돌파되기는 하였지만 20개월 이평선인 1250원이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급등장에서 갭이 발생한 1200원이 1차 지지선, 연중 저점(1102.6원)과 연중 고점(1277원)의 61.8% 조정 레벨인 1170원이 2차 지지선으로 보인다.

## ❧여기서 잠깐❧

[5월 환율정보의 신뢰성 파악]

5월 환율은 리먼사태 이후 환율 급등의 양상을 보였다. 5월 원/달러 환율은 최초 매매기준율 기준 1,108원에서 1,275원까지 상승하여, 뉴스레터 지난 9호에 예상했던 1,080~1,130원과 차이가 많이 났다. 이는 남유럽 재정 적자 문제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환율 급등은 외국인들의 한국자산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유지될 만한 여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 외화유동성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점, 금번 금융시장 불안은 과도한 레버리지에 근거하지 않으며, 문제 국가와 은행들의 Exposure(금융위험)가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08년의 환율 급등 사태를 재현시킬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경상부문의 수급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금융시장 안정이 담보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 외환시장 교란은 언제든지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외환시장은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삼성선물 2010.05.31 6월전망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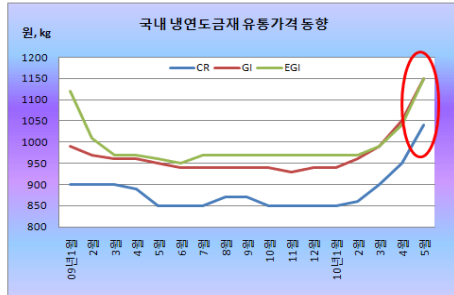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원자재 시장

[냉연] 가격 올리고 나니..5월 냉연유통시장 수요 “뚝”



◇ 스틸데일리 DB

냉연유통시장의 수요가 그야말로 ‘뚝’ 떨어졌다. 지난 4월 여기저기서 물량 달라고 아우성치던 모습은 현재 눈을 씻어도 찾기 힘들어졌다.

냉연스틸서비스센터(SCC)들에 따르면 4월과 5월의 냉연도금재 판매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은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가격인상이 가시화되기 직전이었다. 가격인상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일반 소매점 등의 유통업체들을 비롯해 실수요자들까지 전사적인 사재기에 나섰다. 유통업체들의 경우 가격인상 이전 재고를 확보해 가격인상 이후 팔면 그만큼 마진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수요가들도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물량 확보에 매달렸다.

이러한 사재기성 가수요는 5월 가격인상 이후 뚝 끊겼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냉연SCC들의 경우 공장도 가격인상을 반영해 냉연도금재 유통가격을 10일경부터 대폭 인상했다. 코일센터 상차도 코일이 기존 냉연강판(CR)은 톤당 115만원으로 4월대비 8~10만원 수준 대폭 인상됐다. 유통가격 인상 이후 거래는 거짓말처럼 실종됐다. 수요가들이 꼭 필요한 물량만으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냉연유통시장 수요가들의 분위기는 ‘관망세’인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원료탄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국의 내수가격 하락세가 완연하며 국내 수입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3분기 가격 향방에 대해 가능하기 매우 어렵다보니 수요가들의 생각이 일단 재고를 소진하면서 필요한 물량만 구매하며 관망하자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스틸데일리 2010-05-24기사

## [열연] 수입 열연 유통, 작년 1분기 재연 우려·초비상



◇ 열연코일 수입 유통업체들이 환율 급등 수입가격 상승 제품가격 하락으로 고전하기 시작했다. <사진> 창고에 쌓여있는 열연코일

열연 후판 유통업체들이 2009년 초 악몽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원/달러 환율 급등과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내수가격 하락으로 대 부분 열연 유통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최근 도착기준 열연코일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내수가격을 하락하고 있다. 또 오퍼 가격도 약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수입계약 가격은 단기고점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물량들이 6월까지 꾸준히 유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폭풍과 유럽의 금융위기 가능성 등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열연코일 수입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2009년 초 겪었던 원화까지 급락, 국제가격과 내수가격 하락, 고가 수입재 도착에 따른 재고평가금액 급상승이라는 3각 파도가 유통업계에 불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산 열연 수입 가격은 지난 3월말 톤당 564달러(통관기준)를 저점으로 급상승하기 시작해 지난주 초에는 톤당 642달러 수준에서 통관기준 평균 수입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가격은 4월말 ~ 5월초 85만원 대까지 치솟은 바 있지만 이후 약세를 보이면서 여음 도착기준 SS400사이즈가 톤당 80만원에 턱걸이 하고 있는 상태.

반면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5월 들어 급등하기 시작해 고가 열연코일 결재를 앞둔 수입업체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매매기준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27일 1,104원을 단기 저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5월 26일 현재 1,213.5원을 기록. 1,213.5원(24일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환율만 감안한 가격은 수입가격이 78만원에 달한다. 운반비와 가공비 그리고 금융비용 등을 감안 한 최소 판매 가격은 83만원내외로 치솟게 된다는 계산이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입가격 상승이라는 부정적 요인으로 적자전환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해 80만원 대에서 버티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관계자는 “더 인하여 판매 할 수 없는 상황이 최근 환율로 인해 연출되고 있다”며 “재고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틸데일리 2010-05-24기사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원자재 시장

**[형강] 봉형강 시장, 실수요 실종에 맥없는 가격  
- 봉형강 시장 급격히 위축...고가 제품 사라져**

봉형강 제품 최대 성수기인 5월에 철근 형강 등 봉형강 제품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대했던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산 철근 판매가격은 톤당 77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5월 톤당 80만원을 바라보던 국내 철근 유통가격은 맥없이 하락해 톤당 77만원 수준으로 무너졌다. 국내산 철근 가격 하락과 함께 수입산 철근 판매가격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H 형강의 판매가격도 흔들리고 있다. 5월 중순 이후 영남지역 중국산 H 형강 판매가격은 소형기준 톤당 78~79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저가 제품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가 제품은 5월 초 톤당 82만원에서 톤당 79만원으로 하락한 상태이다. 5월 중순까지 봉형강 제품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유통업계의 가격 인상 의지가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는 유통업체들이 판매 희망가격을 긍정적으로 제시했으나 막상 실수요가 없음에 따라 의지가 무너지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틸데일리 2010-05-24 기사

**[STS] 6월 STS 가격 인하 전망 우세  
-톤당 30만원 수준 낮춰 4월 가격으로 회귀 가능성 높아져**

오는 28일 포스코가 6월 스테인리스 제품 판매 가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톤당 30만원, 4월 수준으로 스테인리스 제품 판매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보다 국제 니켈 가격이 톤당 2만2,000달러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이 스테인리스 가격 인하를 불러온 요인으로 지적된다.

올해 월별 국제 니켈 가격은 현금 기준 1월 1만 8,439.25달러에서 4월에 2만6,030.75달러로 급등했다가 24일 현재 2만2,159.67 달러로 지난 3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4월 스테인리스 가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5월말 원/달러 환율이 국내외 불안 정세로 인해 달러당 1,250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되기는 했지만 5월 평균 환율로만 따져본다면 4월과 큰 차이는 일단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이후 스테인리스 가격에 대해서는 니켈 가격 동향이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당분간 급등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했다.

YGS소식지 165호 2010-05-26 기사요약

## 그리스 문제와 유로화의 한계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통행

#### 경제 통행

#### 기획특집-1

1999년에 출범한 유로화는 단기간에 미 달러화에 이어 제2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로존 회원국들의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여 '금융 안전판으로서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 바닥을 모르는 유로화의 추락은 유로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경제 부진의 근본적인 요인은 유로존 국가의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의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성이다. 통화 정책은 유럽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연방 시스템을 창설했지만, 조세·재정정책은 여전히 각국 정부가 각기 따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유럽 각국 정부는 서로 다른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 범유럽 단위의 공동 경기 부양책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서유럽 선진국들은 자국 국민의 세금으로 가난한 중·동부 유럽국가들을 지원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다.

유로화를 도입한 이후 유로존 16개국의 무역수지를 보면 독일만 항상 흑자이고, 다른 나라들은 적자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강제 통화인 마르크화를 버리고 유로화를 선택함으로써 환율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효과를 얻었으며,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통화는 절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독일의 기업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유로지역에 대한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 외 유로존 국가들은 수출이 줄어들어 힘들었지만, 조달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생성시켰다. 이렇게 생긴 인간의 막대한 빚은 공공부문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가 환율을 평가절하시켜 수출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해도, 유로화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까지도 사용하는 단일 통화이므로 평가절하의 효과가 없었다. 독일 외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방법은 임금, 복지 및 SOC투자비용을 줄여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런 방법을 감내할 국민은 없었다. 독일 또한 그들 정부의 세금으로 타 유로존 국가들을 지원하지 말자고 주장하던 입장이었고, 독일 자국민들의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예상에 없던 IMF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독일이 IMF를 동원한 이유는 국민들의 원성을 피함과 동시에 유로존 국가를 지원해 주면서 유로단일 통화를 깨트리지 않기 위함이었다.

유로화가 깨진다는 것은 독일이 강제 통화인 마르크화를 다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는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유럽 발 재정위기가 그리스, 포르투갈을 넘어 스페인까지 전해진다면 독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앞두고 유로화가 계속 하락하는 것이다. 또한 남유럽 국가들의 과다한 공공부채는 상환능력을 의심받게 되었고, 국채 매도 및 금리 상승의 악순환 속에서 부채 청산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유럽이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불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유럽은 세계 정치 무대나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상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다. 결국 유로화와 유로존의 미래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경제적 중앙정부(연방정부)를 설립할 것인가(의지)와 할 수 있는가(능력)에 달려 있다. 유럽연합이 단일정부 창설에 합의하고, 단일 거시경제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유로의 위상도 확고히 자리잡고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로존(Eurozone):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총 16개국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2

## 안성유리 High~5!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KC그린홀딩스와 KC-Cottrell TOP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시작하는 안성유리TOP는 4월12일부터 6월15일까지 맥큐스 컨설턴트와 함께 실시되었다. 5년 전 실시한 경험이 있어 쉽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High~5 ! 활동은 안성유리의 모든 것을 변화 시키는 불쏘시개의 역할이 되는 거 같다.

High~5! 프로젝트가 시작한지 벌써 6주가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난 간 것을 보면 Project에 참여한 멤버들과 전사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High~5! Project와 함께 실시한 아카데미와 2개월간 진행될 프로젝트 구호선정, 현수막, 포스터, 앰블럼 제작 등으로 전사적인 Boom Up 활동이 진행됨과 동시에 Full Time 멤버 들의 Target Setting이 진행되고 숨돌림 틈도 없이 3교대 근무자를 위한 주간혁신교육과 일근자들을 위한 주간경영교육이 이어졌다.



▶PDP 사례 (이봉형 팀장)



이번 프로젝트기간 중 실시한 활동 중 인상 깊은 프로그램은 중간관리자들의 발표력 향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PDP(Personal Development Plan)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오전, 오후 미팅 시마다 SERI-CEO 동영상 특강이 참여한 모두의 생각과 태도를 긍정과 칭찬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하고 나서 보람을 느꼈던 현장개선 활동의 하나인 AWO(Action Work Out)은 High~5!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안성유리와 KCMS가 TOP 활동을 통해 현장개선을 위한 3정 5S와 실행 방법에 대해 서로의 견을 주고 받을 수 있고, 함께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야간산행은 TOP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보너스가 되는 거 같아 무척이나 즐겁다.

남아있는 Project기간 중 안성유리는 최선을 다해 High~5! 목표인 매출수익률 5% 향상 달성과 칭찬, 긍정, 경청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데 모두가 함께 할 것이다.

안성유리 High~5! 파이팅~~~~!!!!

안성유리공업㈜ 경영기획팀 이봉형 팀장(leebh@asglass.co.kr)

다음 장에 안성유리 배인규 주임과 박건호 차장의 PDP가 이어집니다.

# Personal Development Plan (PDP)

## 사명 선언서

- ◆ 긍정의 삶을 살도록 하자.
- ◆ 자연에 기대어 살자.
- ◆ 그간의 노력에 만족하지 말자.
- ◆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하자.

## 인생 목표

5년	15년	25년
◆ 결혼	◆ 집 마련	◆ 우주 여행
◆ 자기 개발	◆ 자격증 10개	◆ 오토바이
◆ 독 서	◆ 가족 여행	◆ 텃밭 만들기
◆ 운 동	◆ 제2 인생설계	◆ CEO

건강

# Vision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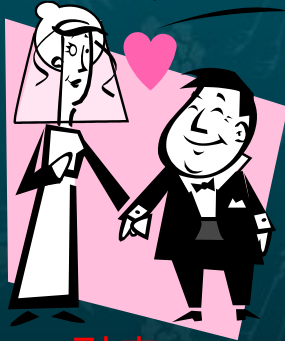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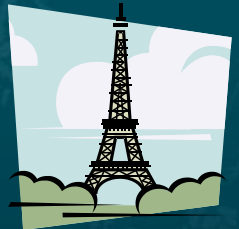
독서



바이클



여행



결혼



인생설계



딛밭



자기개발



집마련



운동



우주여행

# Personal Development Plan (PDP)

박건수 차장

## 인생 Vision

“약속!!”

## 사명선언

1. 목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2.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친다.
3.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 인생목표

1. “항상 좋은 생각만 한다.”
2. “후회 없는 삶을 산다.”
3. “부모님 공경하기”

## Personal Goals

계 획

실 행 사 항

2010 년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 Vision Board

\_\_\_\_My Vision



저축



자녀결혼



과수원



등산



유럽여행



중국여행



자동차



금연



전원주택